

 숨은그림찾기 <146>


(찾) (아) (보) (세) (요) 서틀록, 디리미, 열대어, 뜻, 바늘, A자, 모기, 슬리퍼, 칫솔

상상력

채용된 지 몇 주가 된 청년이 인사부장실로 불려갔다.

“이거 어찌자는 건가?” 하고 부장이 따졌다.

“자네는 입사하면서 5년간의 유경험자라고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첫 직장이잖아.”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다.

“모집광고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정답

국자, 디리미, 열대어, A자, 잠자리, 셔틀콕, 음표, 새집, 칼매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 김선영 (화순군 회순읍 신기리) 김용규 (광주시 서구 화정 4동)

아하! 오늘 바로 그날

1973년 10월 16일 1차 오일쇼크

10월 6일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인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 군과 이집트·시리아 군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0월 16일, OPEC(석유수출기구)의 중동 6개국 석유 장관들은 쿠웨이트에 모여 원유고시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친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석유수출 전면 금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감소하기로 결의했다.

중동 전쟁이 석유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석유가 정치적인 무기로 됐고,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황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차 오일쇼크의 시발점이 됐다.

OPEC의 가격인상과 감산방침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베릴당 2.9달러에 불과했던 국제유가는 곧바로 4달러를 돌파했고, 1974년에는 11.6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유가 폭등으로 서방세계에는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기간산업의 대부분은 석유에 의존해 오던 서방세계는 유가 폭등과 석유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이 10%대를 넘어서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격아야 했다.

한국도 ‘오일쇼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973년 3.5%에서 1974년 24.8%로 수직상승 한데 반해,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지면서 불황을 맞게 된다.

‘오일쇼크’로 인해 전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됐으며, 친(親)이스라엘정책에서 친아랍 중동 정책으로 외교적인 흐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자원국유화 움직임의 가속화로 중동 지역



국가들이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OPEC이 국제석유자본이 독점하던 석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됐고,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가 강화됐다.

1973년 큰 위기를 겪었던 세계 경제는 1978년 12월 회교혁명이 일어난 이란의 석유 수출 중단으로 다시 한번 ‘오일쇼크’를 겪게 된다. 2차 오일쇼크로 국제 유가는 13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했고, 1980년 9월에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유가는 30달러를 돌파했다. 1981년 1월에는 사우디의 석유 무기화 전쟁으로 두바이 유가 3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여파로 우리 나라도 물가상승률은 28.7%로 뛰어올랐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2.1%)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5%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석유파동을 겪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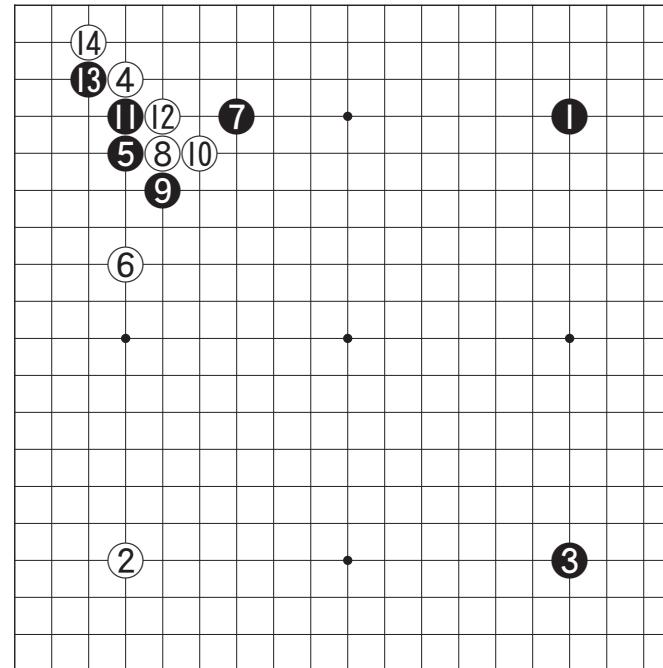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이번의 결승전

중고등부 결승전 1보(1~14)

白 권재구 4단 黑 김영환 4단

(문성중 3) (금구중 1)



이번에는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회장 고경주) 바둑대회 중·고등부 결승전을 소개한다.

중·고등부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명성

을 날리던 강자들이 출동했는데 예상과 달리 고등학생들은 대거 탈락하고 중학생들이 모두 결승에 진출하는 이번이 연출되었다.

그 중 권재구군(문성중 3년)은 일찍부터 우승후보로 꼽혀왔던 터라 예상대로이고 할

수 있지만 김영환군(금구중 1)이 과죽지세

로 강자들을 모두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었다.

물론 김영환군도 초등부 시절에는 수많은

입상경력으로 강자중의 강자에 속했다. 그러

나 중·고등부에서는 기라성같은 선배강자들이 즐비해 본선진출 조차도 쉽지 않은 힘든 일인 것이다.

권재구군은 중등부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강자로 꼽히고 있다. 저학년의 상대를

만나 다소는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인 듯 평

범한 요도정석을 막아하고 백 12로 빙삼각

으로 막는 구형정석을 들고 나온다.

이 정석은 30여년전에 유행했던 정석으로 변

화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악간은 속임수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한때 많은 연구가 있었던 유명

한 정석인데 이들의 정석공부를 따라가 보자.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PA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67>

I bet.

그 말은 맞아.

A : Helen sure was helpful.

B : I have to say that she's the nicest lady I've ever met

A : Everyone says that

B : I bet. I wish everyone was as nice as her.

A : Helen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어.

B : 그래, 그녀는 여태껏 만났던 아가씨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A :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B : 그 말은 맞아. 모든 사람들이 그녀만큼 마음이 좋았으면 좋겠어.

* sure : (=certainly) 확실히, 틀림없이

* I bet : 틀림없지, 그래.

[cf.] You bet? : 틀림없지?

*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

= This's the delicious dishes I've ever had.

오하요우 니혼고 <1167>

三日方舟。

작심삼일

A : 私(わたし)は何でも三日(みっか)以上(いじょう)  (つづ)けたことがないんです。

B : 三日方舟(みっかほうすう)なんですね。

A : 저는 무엇인 3일 이상 계속한 적이 없어요.

B : 작심삼일이군요.

※ 三日方舟는 곧 삶증이 나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작심삼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 三日(みっか) : 이상.

*  : 출곧이어지다.

니하오 쟁구워 <244>

我和表姐一起去。

나와 사촌누나가 함께 갑니다

A: 你去哪里?

nǐ qù nǎlǐ

[나와] 어디로

B: 我去公园。

wǒ qù gōngyuán

[나와] 공원에

A: 你和谁一起去?

nǐ hé shéi yìqǐ qù

[나와] 함께 간다.

B: 我和表姐一起去。

wǒ hé biāojie yìqǐ qù

[나와] 表姐 함께 간다.

A: 낭신은 어디를 갑니까?

B: 나는 공원을 갑니다.

A: 당신과 누가 함께 갑니까?

B: 나와 사촌 누나가 함께 갑니다.

…起 [yǐ] 함께

表姐 [biāojie] 사촌누나

한자 이야기 <883>

立錐之地(입주지지)

설립, 송곳 주, 어조사 지, 땅 지

입주지지(立錐之地)는 송곳을 세울 만큼의 땅으로, 아주 좁고 여유가 없음을 비유한다.

춘추오폐(五霸) 중 초왕(楚莊王)에게는 우맹(優孟)과 손숙오(孫叔敖)라는 신하가 있었다. 우맹은 악인(樂人)으로서 풍자(諷刺)를 잘 하였고, 손숙오는 왕을 도와 정치를 잘하였지만, 청렴하여 가난하였다. 손숙오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쫓날 가난해지거든 우맹을 찾아가서 ‘저는 손숙오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라.”고 유언하였다. 손숙오가 죽자 그의 가족은 길거리에서 펠갑을 팔아 생계를 꾸리다가, 어느 날 길에서 우맹을 만나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였다. 우맹은 초왕이 자신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하자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고, 사흘 후에 와서 재상을 맡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사흘 후 우맹이 말하기, “저의 아내가 초나라 재상은 결코 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고 하였습니다. 손숙오는 재상으로 충성스럽고 청렴하게 초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은 송곳을 세울 만큼의 땅도 없으며(無立錐之地), 빙곤하여 땅나무를 팔아서 끼니를 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史記, 滑稽列傳)

 리빙 센스

살림 재활용하기

◇ 가구의 흡집

가구의 흡이 난 부분에는 같은 색깔의 크레용이나 매직 잉크를 칠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한 다음 투명 매니큐어를 살짝 발라두면 간쪽같이 본래의 상태처럼 된다.

또 검은 색 가구나 자개장에 흡이 생겼을 때는 인스턴트 커피를 조금 떠서 물 한두 방울을 넣고 잘 간 뒤 흡이 생긴 자리에 떨끔하듯 바르고 물기를 말린 다음 물수건으로 자국을 고르게 해서 왁스 칠을 해두면 깨끗해진다.

◇ 금간 칫잔이나 컵

작은 금은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이 가면 즉시 냄비에 우유를 넣어 그 안에 칫잔을 담그고 4~5분 끓인 뒤 꺼내보면 금이 안 보인다. 이것은 우유의 단백질이 금이 간 틈을 메꿔주기 때문이다.

단 이 작업은 금이 갔을 때 바로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금에 양금이나 때가 붙어버려 우유로 끓여도 표가 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음 9월 17일 戊子)

	36년생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좋은 날이다. 48년생 여러 방법으로 고생이나 나타날 수 있다. 60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친인척의 면

<tbl_r cells="2" ix="2" maxcspan="1"